

<2018년 9월 16일 주일말씀>

더 잘하라

본 문 잠언 15장 22절, 마태복음 7장 11절

- ◎ 오늘 3.16 휴거기념관 안에 와 있는 자들과, 한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유럽, 미국,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선생은 건강히 잘 있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 ◎ 한 주일이 빨리 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 ◆ 오늘은 2015년 3월 16일 이후, 정확히 3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휴거 후 3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곧, 더 잘해야 됩니다.

- ◆ <더 잘하라는 것>은

“과거에 하던 대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 함입니다.

- ◆ <더 잘할 것>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 잘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 이것이 비밀의 말씀입니다.

- ◆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시니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또 ‘말씀의 하나님’ 일 때는 말씀을 더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오늘 말씀 “더 잘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 ◆ 주일에는 새벽 설교를 안 하니, 일찍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누가 보고하기를,

“선생님, 월명동 밑에 돌을 실은 차가 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통과가 안 되고, 안 보내서 못 왔는데

4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돌들을 어디에 놓을까요?” 했습니다.

고로 선생이 이전부터 봐 놓은 장소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과 4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선생은 그냥 상식적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치우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큰 돌을 갖다 세워라.

두 개는 세우고, 나머지는 다 빼서 다른 곳에 놓아라.

안에다 놓고, 하나는 위에 없으라.” 하셨습니다.

- ◆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더 잘하게 된다.

<하나님과 의논할 때> 더 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온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상>대로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와 의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됩니다.

- ◆ <더 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원을 높여라.’ 입니다.

- ◆ 차원을 높이려면,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만 됩니다.

행하지 않고서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 ◆ 행해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행해야, <천국>에도 가고

행해야, <주>를 맞게 되고

행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셔도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계속해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더 잘하게 된다.”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 주는 말씀합니다.

“더 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라.

그리하면 네 경영이 무너지지 않고 잘될 것이다.

그러나 의논하지 않으면, 경영이 무너질 것이다.”

- ◆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면, 자기 주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자기 주관에 강한 사람>은 의논하지 않고 해 버립니다.
고로 육적인 사람이 되어 버리고, 가인이 되어 버립니다.

- ◆ 자기 마음을 100% 비우고, 항상 하나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 ◆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처음에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의논했을 때는 내 생각도 붙이고,
내 주관도 붙이고, 여건과 사건, 그때의 모든 처지를 보아서
시멘트로 스탠드 계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딱 잘라 버리고,
100%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향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의 구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 ◆ 어느 시대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100% 비우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을 보여 주십니다.

고로 그때는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어리고
육적인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 ◆ 그러나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주관이 있으면,
<계시>도 거기에 속해서 ‘육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시한 구상,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 ◆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도,
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놓으라고 그 위치를 말씀하셔서
그 구상대로 놓았습니다.

크게는 “여기는 폭포수 위치, 여기는 상징적인 백보좌 위치다.
여기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스탠드 식으로 만들어라.
여기는 연못, 여기는 운동장, 여기는 잔디밭, 여기는 건물 지을 장소다.”
하고 말씀하시어 그 위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이 돌은 여기에 눕히고, 여기는 나오게 하고,
여기는 들어가게 해라. 이 감나무는 뽑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소나무를 심어라. 여기에는 썸이 있어도 심어야 한다.”
해서 하나하나 돌을 쌓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 ◆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한 것>은 하나님 뜻의 역사로서 계속 이뤄져 갔고,
<의논하지 않은 것>은 가인의 역사, 방계 역사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두 가지 역사>였습니다.

- ◆ <자기 주관권의 역사>는 땅에서 육신이 끝나면서 끝나 버렸고,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경영이 잘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같이 잘되고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같이,

신약시대의 아벨역사같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대로 한 역사는

건너편 역사, 방계역사, 가인의 역사였습니다.

- ◆ 마음을 비우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 마음이 잘 비워지는지 압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세계를 깨달았을 때, 보았을 때>
이때는 자기 생각대로 할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때는 ‘이건 내 생각이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됩니다.

- ◆ 또 언제 자기 마음이 잘 비워지냐면,
<실패하고, 함정에 빠지고, 망하고, 병으로 얻어맞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덜덜덜 떨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무섭다고 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 ◆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나,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을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난 자>라야 세상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남자도, 여자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삽니다.

- ◆ <타고난 자>라야 하지, 그냥은 잘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고나야 됩니다.

- ◆ <사람의 성품>도 보면, 저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성품>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부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잘 몰라서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섭리사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석가모니를 믿는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 아니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아예 그같이 되어 있기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 ◆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닫고,
최고의 역사에 와서 이제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더 잘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그다음 말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 너희가 구하는 것은 주는데,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고로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준다.

◆ 선생이 돌을 사 올 때, 처음에는 ‘헐한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좋은 것’을 찾습니다.

<돈>은 깎아서 25분의 1, 혹은 20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를
주고 사 옵니다.

왜요? <존재물>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창조하셨으니,

‘창조자의 것’에 해당되는 값은 빼고

돌을 보관한 ‘보관비’만 주고 사 오는 것입니다.

<돌을 파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돌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자기가 돌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 돌을 살 때 하나님께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보관비>만 빼고 네게 주마.” 하십니다.

이같이 해서 돌을 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만일 개인이 사려면, 값을 다 주고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놓는 것이니 ‘보관비’ 만 주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 이같이 <교회>도 ‘우선권’ 으로

<하나님의 섭리사, 새 시대의 필요한 곳>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오늘은 휴거 후 정확히 <3년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했지요?

<휴거 후 3년 6개월> 기간이 참으로 중하다고 했습니다.

곧, <2015년 3월 16일>을 ‘결혼한 날’ 로 보고,

그 이후 <3년 6개월>이 아주 중하다는 것입니다.

◆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행실도 알게 되고, 성질도 알게 되고, 서로 다 알게 됐습니다.

사람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행실도, 성질도 알게 됩니다.

고로 ‘이렇게 계속 붙잡고 살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휴거 후 3년 6개월의 기간>과 같습니다.

◆ 이 기간에는 하나님도 생각이 깊었습니다.

왜요? 겪어 보니 화가 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겪어 보지 않고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겪어 보는 기간’ 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겪어 보시고, 이제 <마지막 판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더 잘하라.” 이 판명이 떨어졌습니다.

- ◆ 만약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 감동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 ◆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더 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름대로 이혼을 하시든지, 달리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혼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르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지금,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 〈사랑의 세계〉가 최고로 복잡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 ◆ 한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첫 번째 부인〉이 구약,
〈두 번째 부인〉이 신약, 〈세 번째 부인〉이 성약이지요?
그리고 〈성약〉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로 애첩과 같지요?” 하고
권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으니,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건의한 것입니다.

- ◆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늦게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섭리사를 보고 “왜 지금까지 눈에 안 띄었지?
숫자가 적지도 않은데...”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딱 숨기고 기립니다.

- ◆ 가령 반지에 장식이 있다면, 집에서는 장식이 보이게 끼고 다니고, 밖에서는 장식을 손 안쪽에 딱 쥐고 안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눈에 안 띄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 사랑하는 자>는 잘 안 보여 줍니다.

- ◆ 고로 <시대 보낸 자>도 계속 숨졌습니다.

숨겨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보고 좋아하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 할 수 없이 세상에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지하시며 가는 길을 돌려 버리고 못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섭리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
<3.16 휴거 역사>를 감행하시며 말씀에 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 ◆ 지금도 <숨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확확 내놓지 않으십니다.

- ◆ 하나님은 <조은 목사>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조은이는 왜 자꾸 쫓아다니죠?”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네가 컴퓨터를 못 하잖아. 글씨 쓰면 매일 틀리는데,
조은이가 고쳐 주면 좋잖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글씨 잘 고치는 사람
데려다 놓아 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봐.” 하시고는
결국 능력과 조화를 부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계속해서 “더 잘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 하나님과 의논할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고로 늘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 ◆ 전에 조은 목사가 묻기를 “선생님, 이제 전국 순회 운동회가 끝났는데,
혼자 운동하실 거예요?” 하기에 선생이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초인적인 위력을 발사해야 하는데,
같이 땀 사람이 없네요.” 했습니다.

주님의흰돌교회에서 와서 간단히 운동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교회도 같이 오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 ◆ 조은 목사가 이것을 성령과 같이 의논하고 짚 것입니다.

<휴거 후 3년 6개월>이 되어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조은 목사가 이것을 성령과 의논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 ◆ 이날 이 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학부 개강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계속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비가 오면 축구도 못 하고, 사람들이 와도 볼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축구를 해야 청중이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할 텐데, 비가 오면 개죽이 됩니다.” 하면서,
월명동 운동장과 잔디밭에만 비가 안 오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날 구름만 짝 끼고, 비가 안 왔습니다!

- ◆ 고로 이날 하루 종일 행사하고, 운동도 하며 엄청나게 뛰고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휴거 후 3년 6개월>이 끝나게 된 날로서 행사도 했습니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 ◆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해 주시라?’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간구하고,

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정 태우며 간구하는 신부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 ◆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간증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 ◆ 이제는 더 잘해야 됩니다.

모두 그에 해당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더 잘하자.” -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한 것도 잘했지만, 더 잘하자.

더 잘해서 만족한 신부들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 ◆ 사실상 ‘조금 더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하면, 전체가 달리 보입니다.

- ◆ <돌>도 멋있는 돌 위에 딱 하나를 더 얹어 놓으면,
전체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잘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잘하면,
사람 자체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 ◆ <월명동>도 어떻게 지금 모습처럼 됐는가 하면,
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모습같이 된 것입니다.

잘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해서
결국 ‘세계적인 작품’ 이 되었습니다.

- ◆ 세상에서는 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세계 최고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따라갈 수 없으나,
<돌로 만든 것>은 이같이 아무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시대 자연성전>을 쌓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세계적인 타이틀을 얻는
<하나님의 시대 예루살렘, 땅의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 것입니다.

- ◆ <시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조금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 더 잘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더 잘하는 데 있어서 <핵>은 ‘사랑’ 입니다.

“<사랑>을 더 잘하라!”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주 사랑>을 더 잘해야 됩니다.

◆ 그리고 <전도>도 더 잘해야 됩니다.

<시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뛰고 달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 이밖에도 저마다 자기가 더 잘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뇌’에 주시니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못했는지 깨닫고,
더 잘하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전해 줄 테니,
말씀을 듣고 행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 “더 잘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더 잘하라.”

-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이 말씀을 자기 철학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일들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기 운명’이 뒤바뀝니다.

◎ 이 말씀에 대해 선생 아버지가 해 준 이야기를 하나 해 주겠습니다.

▶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광산 일을 했는데,
먹고 살 만큼만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하면 언젠가 큰 것 하나 걸리겠다.

끝까지 해 봐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광산 일을 접고
농사짓겠다고 하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광산 일을 하다 접고 나간 사람>이 30년 동안 파 놓은 굴에서
1m를 더 파서, 거기서 수십 관의 금을 캐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농사지으려 안 나가고 끝까지 더 했으면,
수십 관의 금을 캐고, 운명이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같이 모든 일도 조금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준다.”

◎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 선생의 작은형은 늘 말하기를,

“나는 금 10냥만 캐면 대성공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양합판굴에서 금 30냥을 캐서 셋이 나누고,
딱 10냥이 작은형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말대로 되는 게 참 신기하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찾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 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님과 성자께 이야기하기를,

“간하지 않았으면 수석을 많이 주셨을 텐데,

여기서 나가면 수석을 주울 수 있을까요? 꼭 줘고 싶어요.” 하니
성자는 “〈영의 것〉을 다른 자들이 못 가져간다.” 하셨습니다.

고로 그때 내 영과 혼을 시켜서
월명동 주변의 수석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통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져온 돌은 수석이 아니고 형상석이었습니다.

나중에 내 얼굴같이 생긴 ‘차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니,
결국 3개월 만에 인대산에서 찾아왔습니다.

내 자화상같이 생겼고, 머리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가 빛나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결국 구하니,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형상석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 ▶ 〈유럽에서 복음을 펼 때〉 성자께서는 내게
“너 그냥 놔두면 머리 터지겠다. 바람 쐬러 가자.” 하시어
거기서 돌아다니며 돌 5000만 개를 보고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그때도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도 귀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 년 동안 갈 것입니다.

◆ “구하라.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결국 제일 좋은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월명동의 돌>도, <나무>도 그러합니다.

고로 월명동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으앗!” 할 것입니다.

◆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더 잘하라.

<더 잘해야 할 것> 중에 핵은 ‘사랑’ 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논해라. 의논해야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평소 생활에서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뇌에서 못 나가게,

기도로 꼭 자물통을 잠가 주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한 말씀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겪어 보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구하라. 못 받은 것 많으니까 더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의논이 약해. 의논이 좀 약하니 의논을 많이 해야겠다.” 이같이 신부들에게 한 말씀을 이들이 명심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뱃속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한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 못 하는 그 사정들, 안타까움을 성령께 고하니, 성령이 이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뇌에 이 말씀이 저장되어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오면, 때가 되면 생각나서 수시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잘되고 형통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아멘.